신행수기

관세음보살의 가피력 〈하〉

김해인 (서울 노원구)

관세음보살님께 지극한 정성을 다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외손자 목숨을 구해 주십사' 고 합장 정근 기원하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슬픔과 괴로움에 잠겨 있는 다른 중환자 보호자들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관음 염송 기도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그 때는 제가 정년퇴직하기 이전이어서 낮 근무시간에는 빠져 나오기 힘들었기에 저녁 시간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퇴근 시간에 병원에 들러 중환자실 앞에 대기하고 있는 여러 보호자들에게 "불교를 믿는 분은 문 앞으로 오시라"고 해서 관세음보살의 위신력과 영험을 담은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의 법문을 읽어 드렸습니다.

"만약 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니는 이는 가령 큰불 속에 들어가도 불이 능히 태우지 못하리니 이 보살의 위신력 때문이니라. 만약 큰 물에 표류하는 바가 되더라도 그 이름을 부르면 곧 얕은 곳에 닿게 되리라. 만약 백천만억 중생이 있어서 금 · 은 · 유리 · 자거 · 마노 · 산호 · 호박 · 진주 등의 보배를 구하기 위해 큰 바다에 들어갔을 때, 폭풍이 그 배에 불어 닥쳐 나찰귀국(羅刹鬼國)에 표류해 닿게 되더라도 그 가운데 만일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찰의 난을 벗어나게 되리니 이러한 인연으로 이름을 관세음이라 하느니라.

만약 또 어떤 사람이 피해를 당했을 때에 관세음보살 이름을 부르면 그들이 가진 칼과 몽둥이가 곧 조각조각 부서져서 벗어날 수 있게 되며, 만약 삼천국토에 가득한 야차와 나찰이 와서 사람을 괴롭히려 해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 이 모든 악귀가 오히려 악한 눈으로 보지도 못하거든 하물며 다시 해치려 하겠느냐. 가령 또 어떤 사람이 죄가 있거나 죄가 없거나 고랑을 채우고 칼을 씌우고 쇠줄이 그 몸을 결박하였을지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다 끊어지고 부서져서 곧 벗어나게 되리라.

그림 · 문병성

매일 세차례 108배와 관음기도 1주일 지나자 "기적적으로 회복"

이 보살은 능히 중생들의 두려움을 없애주나니 그대들이 만약 명호를 부르면 이 원적에서 마땅히 벗어나게 되리라"

차근차근 읽은 후 관세음보살의 명호만 불러도 그 영험과 공덕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간절한 마음으로 중환자들이 하루바삐 회복되기를 관세음보살님께 기원하며 염불을 드립시다"라고 제의해 만장일치 찬성을 얻어 〈반야심경〉 독송과 관음정근 염불을 하기로 했습니다. 준비해간 〈법요집〉을 나눠 주고 제가 선창하면 뒤따라 염송하도록 시범을 보였습니다. 매일 아침, 낮, 저녁에 세 번 씩 하자고 제의했더니, 사위와 딸애는 매일 아침 저녁에 교대로 병원 가까이 있는 봉원사에 가서 108배 기도를 올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절에도 가고 중환자실 앞에서도 하고 해서 관세음보살님께 철석같은 굳은 마음으로 매달리자" 고 했더니 동의해 줬습니다.

아침과 낮은 제 사위와 딸이 중심이 되어 관음 염송 기도를 올리고 저녁에는 제가 맡았습니다.

이렇게 염불기도를 계속한 지 1주일 쯤 되었을 때 외손자 담당의사가 "이상하다"면서 일반 입원실로 아기를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사위와 딸, 우리집 가족 모두 너무 기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 말하기를 "중환자실로 옮기기 전에 최선을 다 했으니 도저히 치유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포기한 상태였는데 회복한 것이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회복의 원인은 의술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살핌때문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한 것은 세브란스 병원은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 설립된 병원이고, 그곳에 근무하는 의사선생님들도 거의 기독교인이므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 모두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인과응보(因果應報)로 관세음보살님께 올린 염불 기도의 과보임을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반 병실로 옮긴 뒤 손자는 점차 호전되고 열흘 만에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했습니다. '거의 살아날 가망이 없을 것이라' 고 여겼던 외손자가 완쾌되어 현재까지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 동안 감기 몸살 정도의 잔병은 앓았으나 그래도 잘 자라 현재 중학교 2학년이 되어 공부를 잘 하며, 학급 반장 일도 맡아보고 특별활동으로 피아노 레슨과 영어 회화 등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발달된 현대 의학으로 소생시킬 수 없다고 포기했던 제 외손자가 이렇게 건강하게 되고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게 된 것은, 온 가족이 관세음 보살님께 지극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드린 관음 기도의 가피력에 힘입지 않고서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뒤에 딸애로부터 들은 이야기지만 그 때 중환자실 앞에서 관음정근을 같이 한 중환자의 보호자 한 분을 종로 거리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뇌진탕으로 입원했던 자기 남편도 소생하여 건강하다는 말씀을 하면서 그 동안의 소식을 서로 나누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21세기의 과학 만능시대라 할 지라도 인간의 지혜로는 풀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한의 신비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모두 대우주의 진리를 깨닫는 가르침인 불교를 신해행증(信解行證)합시다.

나무 관세음보살 마하살.

신행수기 잘 쓰려면 ⑦ 묘사와 서사 — 사물의 현상 · 변화과정 등 정확히 전달되게

1. 묘사란

묘사는 어떤 대상적 사물의 현상을 보고 듣고 관찰하여 그 인상을 감각적으로 그려내는 서술의 한 양식이다. 실제의 상황이나 실제의 경치를 독자로 하여금 스스로 맛보게 하기 위한 표현이다.

우리는 누구나 슬프든 즐겁든 의식이 '어떻게' 든 반응하지 않고는 그 진미(眞味)나 진경(眞境)을 표현해 내기 어렵다. 그 '어떻게' 를 알려면 감각해야 한다.

①눈이 유리창에 내리고 있다. ②싸락눈이 유리창에 부딪치고 있다. ③싸락눈이 유리창에 싸라기처럼 싸락싸락 부딪치면서 나뒹굴고 곤두박질을 치다가는 또르르 또르르 굴러서 토방 위에 새하얀 떡가루처럼 소복이 쌓이고 있다.

위와 같이 묘사의 정도는 ①문보다는 ②문이, ②문보다는 ③문이 더 구체적이고 감각적이다. ③문에서는 세부적인 인식과 묘사가 구체적으로 형상화되어 실제로 그 대상을 보는 듯 그려진다.

유의할 점은 ①객관적일 것. 냉정한 관찰을 거칠 것. ②정연할 것. 시간과 공간상의 순서를 지킬 것. ③대상의 요점과 특색을 가려 거두는 반면 불필요한 것은 버려야 한다.

2. 서사(敍事)란

서사는 사건의 진행, 사물의 변화 과정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모두 무엇인가의 '움직임' 이다. 그런데 움직임은 반드시 '시간' 의 추이에 따르게 마련이다. 서사는 단순히 시간의 추이에 따라 어떤 움직임을 그려 보는 데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 그 움직임의 무언가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따라서 '움직임' 과 '시간' 과 '의미' 는 서사를 구성하는 기초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맹난자(수필가, '에세이문학' 발행인)

자세한 내용은 www.buddhanews.com에서 보세요

릴레이 수행일기 (上)

내 양복 안쪽 호주머니에는 항상 〈금강경(金剛經)〉이 들어있다. 1979년 정음사에서 출간된 문고판인데, 나는 이 책을 8년 전 신림동 헌책방에서 500원에 구입한 후 지금껏 지니고(受持) 다닌다. 인연으로 따지면, 사람과의 인연, 물건과의 인연, 장소와의 인연 등이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이 〈금강경〉 소책자는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인연이다. 그동안 표지가 헤져 비닐 책표지를 두 번 새로 쌌다. 〈금강경〉을 가지고 다니며 일상생활에서 출퇴근 혹은 시간 날 때마다 읽는 것이 내 수행의 요체가 된 셈이다.

정신없이 바쁜 재가불자들이 수행을 위하여 매일 시간을 낸다는 것은 사실 힘든 일이다. 또 이렇게 매일 수행에 해본 재가불자들이라면, 한두 번의 시행착오를 겪어본 경험을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동안 무슨 수행이든 재가불자인 내게는 작심삼일(作心三日)이었고, 한 달 이상 끌고 가기가 힘들었다.

이성학
능인선원 IT본부

8년전 헌책방에서 구입한 '금강경' 매일 뜻 새기며 읽어…하심 생활화

그래서 게으른 성격상 나름대로 찾아본 방법이 바로 하루 아무 때나 자투리 시간을 이용한 '경전 읽기' 였다. 나는 이것을 간경수행(看經修行)이라 부른다.

간경수행! 구태여 독경(讀經)과 구분하자면 독경은 뜻을 모르고 기계적으로 음만 읽는 것도 공덕이라 하여 포함시키지만, 간경(看經)은 '볼 간(看)이라는 한자가 손(手)을 눈(目) 위에 대고 읽는다' 는 것처럼 경전의 의미를 마음으로 되새기며 읽는 수행이다. 얼마 전 열반하신 일타 스님도 불교 4대수행법 중 의미를 알고 읽는 간경수행법을 의교관행문(依敎觀行門)이라 하여 중요하게 여겼다.

내가 〈금강경〉을 자세하게 공부하게 된 것은 1996년 가을 서울 신림동 연화정사에서 한정섭 법사로부터 〈금강경〉 강의를 듣게 된 때부터다. 나는 고향인 광주 관음사에서 상인 스님으로부터 학륜(學輪)이라는 법명도 받았다. 하지만 이후 현실불교에 회의를 느껴 한동안 불교를 멀리했었다. 여러 사상적 방황 끝에 재발심해 다시 절을 찾은 날, 마침 한 법사의 〈금강경〉 강의는 마음의 고향을 다시 찾은 것과 함께 그간 느슨했던 내 마음에 우레와 같이 다가왔다. 〈금강경〉이야말로 생활불교의 의전(依典)이라는 것을 실감했다. 윗사람에게는 하심을, 아랫사람에게는 공경법을 길러주는 경전중의 경전이라는 것을 절감했다.

이후 난 〈금강경〉을 더욱 파고들었다. 본격적인 수행방편으로 〈금강경〉을 읽게 된 것은 어머님이 돌아가신 것이 계기가 됐다. 1997년 겨울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아는 선배가 49재 동안 매일 〈금강경〉을 읽어주면 공덕이 된다고 해 어머님에게 읽어드렸다. 이후 습관이 되어 지금까지 계속 읽고 있으면서 〈금강경〉이 수행방편일 뿐만 아니라 망자에게도 공덕경(功德經)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금강경〉은 읽어볼수록 묘미가 다르다. 그런데 왜 유독 중국 한국 일본 등 동양 3국에서 예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금강경〉을 읽고 연구했을까? 그것은 대승불교에서 반야지혜야말로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든 불교의 핵심이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진리이고, 〈금강경〉이 바로 반야경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어느 순간은 환희심을 느껴 직장동료, 불교동호회 회원들에게 〈금강경〉 소책자를 수십 권 사서 보시하기도 하였다. 책 읽는 것을 좋아하고, 〈금강경〉을 한번이라도 공부해본 사람이라면 일상생활에서 매일 금강경을 읽어보자. 따로 시간 내기 힘든 분은 소책자도 좋다. 간경(看經)은 눈과 귀를 넘어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듣는 수행법이기에 그렇다. (계속)

천안통. 천이통. 의통

양수영 원장님은 천안통, 천이통, 의통이 열린분으로 영화 화면 보듯이 영가들과 대화를 하여 빙의로 인해 중병에 시달리는 분들을 치유합니다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하늘의 기운이 들어오는 약손을 만들어 드립니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전화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법화 정법회. 천일선원 소백산수련원
054)638-2224 〈경북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해동승복

직접 만나보세요!! 품질로 보답하겠습니다

각종누비
- 면누비(먹물)
- 모직누비
- 물실크 누비
- 무명누비
- 손누비 (명주, 무명...)

동복
- 고급모직
- 무명
- 각종 먹물, 면

장삼, 가사, 조끼 몸빼, 셔츠

대구 고속터미널 ⟷ 동부정류장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 4동 399-1
TEL : 053)741-8131
FAX : 053)741-8132
H.P : 011)549-8130

기공안내 氣功案內

- ♠도(道)를 닦거나 기공수련의 기초 관문인 **경락소주천(經絡小周天)** 운행을 기공사가 직접 **1개월 이내에 완성**시켜 드립니다.
- ♠**11~13세 미만** 아이들에게 대뇌를 개발하고 **인체투시(천안통, 천이통)**기능을 1주일에 완성시켜 드립니다. (기억력, 창의력 증가)
- ♠**6세 미만 벙어리** 아이들을 말을 하게 하고 **16세 미만의 간질병** 아이들을 경기 뚝, 확실합니다.
- ♠**얼굴형 교정**(광대뼈 두드러지고, 넓은턱), 거칠은 피부, 검은피부를 부드럽고 예쁜 하얀 피부, 얼굴로 바꿔 드립니다.
- ♠**불임**때문에 걱정하시는 분(아기를 낳고 싶으신분) 해결해 드립니다.
- ♠**척추디스크, 심혈관 계통(혈액순환기 계통), 소화기 계통,** 난치병(폐장암, 위장암, 대장암, 당뇨, 뇌졸증, 관절염)등 중병 질환에 특수한 인체조절, 예방효과가 있는 **氣功 수련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 ♠말로, 책으로는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성명쌍수(性命雙修) 수련법 진수**를 전수해 드립니다. **경락소주천**과 **대주천**을 완벽하게 운행할 수 있는(인연이 닿는 분은 3개월 이내) **기공사**(기공치료 의사)를 양성합니다.

무료 상담 환영

대불통령내단공(大佛通靈內丹功)修練院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8-3 르네상스오피스텔 1212호 (교대정문사거리)
TEL : 02)3471-7277
H · P : 016-299-4864 / 016-214-4864